

대학의 설립자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niversity's Management of the Founder's Private Records

오 의 경 (Euikyung Oh)**

목 차

- | | |
|----------------------------|---------------------------|
| 1. 서론 | 4. 배상명 생애사 연구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1 배상명 선생의 생애 |
| 1.2 연구 방법 및 절차 | 4.2 배상명 선생 기록 현황 |
| 2. 이론적 배경 | 5. 배상명 생애사 분석을 통한 기록관리 방안 |
| 2.1 개인기록 | 제안 - 기록의 분류와 향후 수집계획을 |
| 2.2 대학의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 중심으로 |
| 3. 대학 설립자 기록 관리 사례 - 명지대학교 | 6. 결 론 |
| 대학 사료실 설립자 기록 관리 | |

<초 록>

본 연구는 개인의 기록이 사회의 공공기록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학의 중요 기록물은 행정기록 이외에 대학과 관련된 인물의 개인기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대학의 설립자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기록의 분류체계와 수집전략 구축에 활용하였다. 분류체계로 기능 및 주제 분류 그리고 형태분류로 구성되는 다중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수집전략으로는 분류체계에서 도출한 키워드들을 향후 기록 수집을 위한 탐색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잠재적 수집처 및 생산자로 추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은 만들어 질 수 없지만 개인기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주제어: 개인기록, 공공기록, 대학기록물, 대학 설립자, 생애사 연구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private records can supplement public records. It recognized that important records of a university could be supplemented with not only administrative records, but also with private records of persons related to the university. The analysis of the founders' life history research was used to establis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rivate records and collection strategies. The life history of the founders of the university was analyzed and utilized for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record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llection strategy. This research proposes a multiclassification system with function, subject, and type as the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uses keywords derived from the classification system as a starting point of searching for future record collection and deducing them as potential collectors and producers. Although it cannot be a standard for all private records, it can be considered a significant attempt that takes the diversity of private records into account.

Keywords: private records, public records, university records, university founder, life history research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ohuei@smu.ac.kr)

■ 접수일: 2017년 1월 22일 ■ 초심사일: 2017년 2월 2일 ■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24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43-161,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1.14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기록물은 대학의 행정기록, 그리고 기록 관리 정책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는 매뉴스크립트 성격을 갖는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기록은 대학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생산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공립 대학 내 기록관의 설치, 기록물의 생산·수집·관리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비교적 지속적, 체계적, 표준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출처가 분명하고 원질서의 유지에도 용이하다. 반면에 매뉴스크립트 성격의 기록은 대학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전·현직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의 개인기록이나 대학의 역사와 발전 등에 관한 기록·박물류 등을 포함하는데, 출처와 물리적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록의 생산배경과 내용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기록들은 행정기록의 경우와 달리 법률에 의한 생산·수집의 의무가 없고 관리 방식은 대학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다양하고 자유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은 행정기록의 사실성을 보완하여 기록을 맥락 안에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록의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견고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매뉴스크립트 성격의 기록물 중에서도 대학 관련 인물의 개인 기록에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개인기록은 일차적으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삶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록에 포함된 사건, 시

간, 인물들과 일개를 만들어 나간다면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집합기록으로 그 가치가 확대된다. 또한 대학의 개인기록은 대부분은 대학과 연관된 인물이 오랜 시간을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정책, 목표, 이념, 학교史, 학교의 발전 방향 등을 담아낼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개인기록의 출처인 대학 관련 인물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설립자, 전·현직 교수, 교직원, 학생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동문들이 포함되는데, 특히 설립자는 대학의 시작부터 존재하여 그가 작고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대학과 관련된 의미 있는 기록을 생산해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설립자의 기록은 대학기록물의 개인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개인기록은 생산과 관리가 표준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 수집된 기록을 어떤 체계로 분류할 것인지, 향후 어떤 전략으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고 적합한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된 각각의 시대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회적 현상들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기록관리의 준거로 삼는 결과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활용되며, 최근 기록학 분야에서도 방법론으로 적용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록학의 관점에서 생애사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록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이러한 준거에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놓는 것이다(최인혁, 이영학, 2015). 패턴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개인의 삶과 사건들을 시대적 여건이나 사건에 결부시켜 의미를 도출해 내는 연구들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를 위해서는 생애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심층면담, 내레이션 분석 등이 다각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의 기록물 중 설립자 개인기록의 관리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기록의 관리는 수집정책의 수립부터 선별 평가, 수집 실행, 분류, 기술, 이용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애 연구를 방법론적으로 적용하여, 개인기록을 집합기록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수집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하여 상명대학교 설립자 배상명 선생의 개인기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배상명 선생의 생애를 분석하고, 타 대학의 설립자 기록관리 사례, 개인기록물 관리 사례 연구 등을 기반으로, 기록물의 분류체계와 향후 수집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절차

전술한 바와 같은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기록의 개념을 본질,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하고 연구에 적합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탐구하여, 연구의 방법론

을 확립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 관련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여 연구의 흐름을 간파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로 대학에서 설립자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의 사례를 조사하여,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다.

넷째, 상명대학교 설립자 배상명 선생의 생애를 분석하여, 설립자 기록물을 상명대학교의 집합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기록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수집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개인기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3조에 의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즉, '민간기록물'로 볼 수 있고,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영구 보존 가치를 인정하면 국가 지정기록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최영주(2005)는 개인기록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는데, 개인기록의 본질, 가치, 종류,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기록은 개인 활동의 산물로, 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생산, 축적된다는 본질을 갖고 있으며, 단지 행동과 사실들만이 아닌 사람의 의견, 관점, 판단, 감정, 반응을 포함한다. 생산자가 실질적인 기증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

인기록물을 기증하는 경우에도 가족이거나 연관된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

개인기록에 쓰이는 단어는 잠재의식이 반영된 개인적인 생각이며 동시에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록생산자의 가치관과 내적 특성을 밝힐 수도 있으며, 또한 개인기록은 자아표현, 자아확대, 자아기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개인기록의 종류로는 전기적 성격의 학력 증명, 신분증명, 상장과 일기, 회고록, 원고 다른 사람이 작품 속에 관련되어 있는 발췌문, 번역문, 초록 등이 있고, 공무활동으로 발생한 회의 출석 요청서, 각종 회의 보고용 원고, 초청장, 개인 서신, 본인과 가족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각종 계약서, 회계장부, 영수증 등과 사진, 음성, 영상과 같은 형태의 기록 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기록의 내용적인 범위는 사적인 활동과 공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범위 구분은 정리 작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같은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조직에 속해 있을 때와 개인의 위치에 있을 때 맥락과 분위기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개인기록을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대학 관련 인물의 각종 기록'으로 정의하고, 대상이 되는 배상명 선생 개인기록의 가치는 선생의 사적인 삶을 반추하는 가치와 그러한 사적인 가치가 상명대학교의 학교사, 교육정신, 교육이념, 교육목표 등과 결합되어 상명대학교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집단기억으로 공유할 만한 사회적 기여 부분에 있다는 것으로 전제한다.

2.2 대학의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의 개인기록에 대한 연구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부진한 편이지만, 최근에 이르러 개인의 일상 기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개인의 일상을 축적하여 사회를 조망하는 시각이 유행하게 됨에 따라, 개인기록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주목하는 듯하다. 대학의 개인기록은 대학이 의도적으로 수집하는 중요 인물에 대한 기록물 그리고 대학 관련 인물이 생산, 수집, 관리하는 기록이다. 관련 연구는 대학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혹은 개인기록의 아카이브나 컬렉션 구축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고, 개인기록물의 전반적인 관리 프로세스 방안을 제시한 연구(최영주, 2005; 이은화, 2009), 특정 인물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인기록 관리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연창, 2007; 한희동, 2013; 김길태, 2017) 그리고 개인기록 관리를 위한 전제가 되는 생애사 연구(최인혁, 이영학, 2015) 등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의 연구들을 각각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영주(2005)는 대학기록관의 개인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인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 한다고 하였다. 수집을 위해서는 개인기록물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정리는 개인의 활동에 따른 방안과 이용자 서비스를 전제로 한 주제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에 있어서는 개인기록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ISAD(G)와 ISAAR(CPF)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기록의 적극적인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합한 검색도구의 필요성 또한 제안하였다.

이은화(2009)는 개인기록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의 배민수 컬렉션을 대상으로 수집, 분류, 메타데이터 구조, 물리적 정리, 이용·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기록 관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록의 수집과 분류를 위해 개인의 생애사 분석이 바람직하며, 기록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일차적 분류 지점으로 보았고, 현재의 메타데이터에 추가하여 앞으로 정보서비스나 이용을 위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였고, 강의, 전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연창(2007)은 국내외 기업인, 정치인, 대통령 등 유명인들의 인물기록관을 리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물기록관 구축에 필요한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는데, 인물기록관은 해당 인물의 삶과 사상이 망라됨으로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입장도 함께 정립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희동(2013)은 대학 설립자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설립자의 기록은 대학의 창학정신과 교육이념을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가정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따라 영역과 범위 설정, 정보원과 대상 분석, 실행, 평가 그리고 수집 이후의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영역과 범위는 주로 설립자가 활동했던 시기별, 생산자별, 소장처 별로 구분하였고, 도큐멘테이션의 대상은 기록의 유형과 영역에 따라 선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가족 및 학교 재학 등과 관련된 기록의 경우는 그 대상을 가족과 친구로 선정하였다. 수집한 기록은 유형, 출처, 내용 등을 기준으로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김길태(2017)는 민간기록물의 성격을 갖는 개인 기록은 개인의 기억 그 이상으로 공동체적 기억의 테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김대건 신부 관련 기록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등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에 김대건 신부의 생애사 연구를 추가하여 주제기분의 분류 체계를 완성하였다. 1차 분류는 주제별 분류로 병오박해, 스승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복자, 성인, 유물, 사진 등으로 구분되고, 2차 분류는 기사, 단행본, 비디오, 서한, 구술사, 사진, 회화, 유품, 학위논문 등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최인혁과 이영학(2015)은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에서, 각 학문별 생애사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특히 기록학 관점의 생애사 연구는 기록의 선별과 평가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즉 개인의 기록 중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의 기록물 선별 평가 연구는 주로 공공기록물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개인기록에 대한 선별 평가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공공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록화의 대상은 사회나 조직이 아닌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개인 기록화의 전제는 생애사 연

구에 있다고 보았고,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기억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기록으로 공통적인 시간 축 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궤적을 통해 맥락을 만들어 내는 작업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인기록은 공공기록의 보완으로 그리고 사회의 집합적 기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둘째, 개인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즉 생애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중요성을 도출하고 기록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개인기록의 관리는 기록의 전체의 프로세스는 유사하지만, 분류체계와 내용의 중요성들은 기록마다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개인기록의 수집에 앞서서는 기록의 중요성, 수집 범위 및 영역 등을 파악하고, 시대와 사회의 맥락 속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의 생애사 연구가 적합하고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상명대학교 설립자 배상명 선생의 기록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분류와 기술의 단계를 거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즉 개인의 특성이나 기록의 특성을 현재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없고 정의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생애사 연구 방법의 적용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생애사 연구가 몇몇 사료의 내용 분석만으로는 객관성이나 내용의 풍부함을 갖출 수 없으나, 본 연구는 사료 중심의 분석에 제한하여 수행되는 한계를 갖는다.

3. 대학 설립자 기록 관리 사례 - 명지대학교 대학 사료실 설립자 기록 관리

대학 설립자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대학 사례는 드물다. 명지대학교는 1956년 설립자 유상근 선생이 명지학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설립자로서 뿐만 아니라 명지대학교의 교수, 총장으로 역임하면서 명지대학교의 대표적인 인물기록의 생산자이자 출처라고 할 수 있다. 유상근 선생에 대한 기록은 명지대학교 대학 사료실에서 수집, 보존, 관리하며, 디지털아카이브 형식으로 구축되어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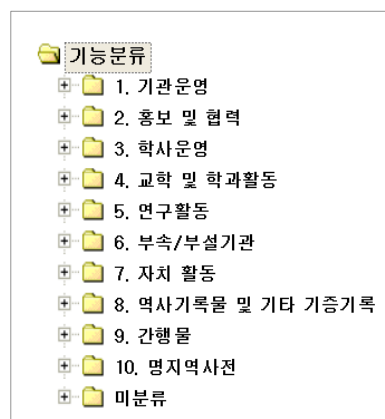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명지대학교의 사례를 조사하는 이유는 이후 4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상명대학교 설립자의 상황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데, 두 설립자 모두 설립 당시부터 설립자가 세상을 떠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과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례 분석의 타당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명지대학교의 대학 사료실은 명지대학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학의 구성원들의 모든 기록을 수집 관리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구성원에게 기여하는 사회 문화적 차원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설치되었다. 2001년 출범 당시에는 박물관 소속이었으나, 2010년 도서관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방목학술정보관 내에 위치해 있다. 대학의 행정기록 관리와 사료 관리를 병행하는 대학 기록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학기록 관리 기관으로서의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컬렉션 수집 및 대학 행정기록과 박물관의 이관, 타 부서 소장 사료의 발굴

등을 통해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 11,000여 건의 기록이 수집·관리되어 온라인상에서 이용가능하다. 이 중 설립자 기록으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 764건이다.

기록물들은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체계는 분류검색과 통합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류검색은 조직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기록을 이용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분류검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는 명지대학교 및 대학 관련 기관의 기록을 기능 및 조직을 근간으로 '대분류-시리즈-건'으로 연결되는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분류의 하위는 기능분류, 시대분류, 형태분류의 세 가지이다. 기능분류는 9개의 대기능과 1개의 미분류 항목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카테고리 구성하고, 시대분류는 191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분류하고 1950년대부터는 각 시대마다 1년씩 다시 세분류하였다. 형태분류에서는 문서류, 사진류, 시청각류, 간행물류, 신문류, 박물관류로 분류하였다. 통합검색은 검색어 검색, 사료분류 검색, 생산일자 등등 다양한 방식의 검색방식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다. 통합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원문 내용을 반영하는 주제어를 부여하고, 인명 및 학과명 등 고유명사들을 포함하는 주제어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거 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시소러스를 구축하였다. 이는 특정기록물을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취약한 분류검색을 보완하여 명지대학교의 기능 및 조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록물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해영 등, 2008). 종합하면, 명지대학교 대학

사료실의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을 귀납적 그리고 연역적 관점을 모두 반영하는 입체성을 갖는다. 설립자 기록은 기능분류를 중심으로 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번째 대기능 분류인 '8. 역사기록물 및 기타 기증기록'에, 다시 중기능인 '8.3 설립자 기록'에 분류되어 있다. 이어서 중기능은 '8.3.1 설립자 개인기록', '8.3.2 설립자 조직활동기록', '8.3.3 설립자의 관련자 기록', '8.3.4 설립자 사후기록', '8.3.5 설립자 기타기록'의 5개의 소기능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기록물은 <그림 2>의 예시와 같이 시대분류, 형태분류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사실상 기능분류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주제 분류로 볼 수 있다. 명지대학교는 설립자 기록을 주제, 시대, 형태를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립자의 기록은 시대를 경과하면서 축적되기 때문에 시대적 구분이 수반되며, 일상의 삶은 새로운 사건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기능 혹은 주제에 의한 구분은 맥락을 이해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그림 1>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기록 기능분류(대기능)
(출처: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홈페이지)



〈그림 2〉 설립자 기록 검색 결과 화면 예시
(출처: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홈페이지 검색결과)

4. 배상명 생애사 연구

배상명 선생의 생애 연구는 현재 선생에 대한 기록이 양적으로 풍부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잠재적 수집이 예상되는 기록을 추정하고, 기록 전체의 특성과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배상명 선생의 생애는 선생 개인에게 사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소속하여 생활하였던 상명대학교라는 사회를 투영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설립자의 일생을 통하여 대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맞추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

배상명 선생은 상명대학교의 설립자로, 1906년 평안남도 금천리에서 태어나 1937년 상명대학교의 전신인 '상명여자고등기예학원'으로 교육 사업에 투신하여, 이후 '상명실천여학교', '상명

여자사범대학', '상명여자대학', '상명여자대학교'까지 직·간접적으로 학교경영에 참여하였고, 1986년 지병의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배상명 선생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4종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생의 생애를 개인적인 역사와 학교사와 관련된 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千年樹 - 桂堂 裴祥明선생의 教育과 그 生涯. (1966). 배상명 화갑기념 사업위원회 편
- 설립자 배상명 씨앗을 심다(상명대학교박물관 상명역사전시실 개관기념전). (2012). 상명대학교박물관 편
- 계당 배상명 교육을 위해 살다(계당 배상명 기념관 재개관기념전). (2013). 상명대학교 박물관 편
- (계당 배상명 선생 추모·회고집) 내일의

시작은 오늘에 있다. (2015). 이준방 저. 상명대학교 50주년 기념사업회 편.

4.1 배상명 선생의 생애

배상명 선생은 1906년 5월 17일 평안남도 금천리에서 아버지 배홍곤과 어머니 최덕권의 장녀로 태어났다. 신식 교육을 받은 부모덕에 자연스럽게 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평양의 명륜소학교를 거쳐 서울 동덕여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동덕여학교 시절 교장이었던 조동식(趙東植) 선생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이후 교육사업에 대한 꿈을 꾸게 된 듯하다. 조동식 선생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고, “가정이나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였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로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몸소 가르쳐준 평생의 멘토였다.

동덕여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이나 유학을 도모하였으나, 집안의 반대로 1924년 4월에 서울 삼선(三仙)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여 2년 가까이 교사생활을 하게 된다. 그 사이 1925년 방관책 씨와 혼인하고 이어 출산을 하는 등 가정에 묻혀 학문에 대한 열정을 접은 듯하였으나, 1935년(추정) 어린 딸과 남편을 두고 홀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 동경고등기예학교(東京高等技藝學校) 사범과에서 수학하였다. 1937년 5월 졸업 후 귀국하여 여성의 능력 신장을 의지로 같은 해 12월 종로구 중학동에 ‘상명여자고등기예학원’을 설립하였다. 당시 입학생 수로 가늠한 교육의 수요는 예상을 뛰어 넘는 놀랄만한 정도였다고 한다. 1939년 ‘상명실천여학교’라는 명칭으로 정

규학교로 성장, 발전하였다. 당시 교훈은 ‘성실’, ‘순결’, ‘강건’, ‘근면’, ‘신의’로 정하였으며, 선생은 교육은 지적(知的)인 면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되며, ‘의’와 ‘사랑’을 익히고 이는 인간성에서 비롯되고, 인간이 가진 개성을 교육으로 육성하고, 윤리에 입각한 새로운 도덕을 세워서 참신하고 한국적인 인간이 되도록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945년 7월 15일, 마침내 상명학원은 재단법인으로 공식인가를 얻게 되어, 학교명칭도 ‘상명실천여학교’에서 ‘상명여자상업학교’로 변경하였고, 다시 1946년에는 학제를 바꾸어 6년제 인문중학교인 ‘상명여자중학교’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1948년 10월 3일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단이 주축이 되어 8개월간 미국으로 교육시찰에 나섰다. 여자로 구성된 교장단들은 여성교육에 참고가 될 만한 기관들을 시찰하고 여성교육의 실제, 교육방법, 교육 방향 등을 보고 관찰하였다. 계당선생은 활동 후 바로 귀국하지 않고 시카고대학에서 교육학을, 미시간대학에서 영어 속성과를 연이어 수학하며 1954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도 선생이 귀국하지 않고 뉴욕으로 옮겨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다시 전공하고, 퍼블릭 스피치 코스도 이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카네기홀의 스피치 에이전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와 교회에서 한국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였다. 강연은 성공적이어서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었고, 강연 수익료는 당시 부산 피난학교로 운영되고 있던 ‘상명여자중학교’로 보내, 학교재정에 도움을 주었다. 선생은 뉴

육영사관을 통해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백낙준(白樂濬) 박사에게 자신의 활동과 교육자의 신념 등을 편지로 알리기도 하였다. 여세를 몰아 'The American Foundation for the Sang Myung School Korea, INC(이하 재미 상명학원재단)'을 결성하였다. 신시내티 오하이오 대학교의 총장인 월터C. 랑삼 씨를 명예 이사장으로, 우리나라 YMCA 창설자 조지A. 핏치 박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였다. 독지가 1백여 명의 후원에 힘입어 6명의 이사를 선출한 뒤, '재미 상명학원재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 모든 것을 6년 만에 이루고 1954년 귀국하였고, 1955년 12월 1일, 교육사업에 대한 높은 뜻과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육 공로표창을 받았다.

1959년 6월 26일에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여학사대회에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 이메리 씨, 덕성여고 송금선 교장,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조동식 박사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홍콩·방콕·카라치 등 동남아 도서를 거쳐 로마·제네바 등 유럽을 일주하는 교육 시찰에서 동남아 후진국과 서구 선진국 사이의 문화발전과 생활상의 격차는 교육에서 비롯됨을 절감하였다. 학교로 돌아온 후 선생은 미국과 유럽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점진적으로 상명에서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구성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민주적인 교육방식을 존중해 나갔다. 상명의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였고, 학생들은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학술경연대회, 예체능콩쿨대회, 미술대전, 운동경기시합, 웅변대회 등 각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교

육자로서 선생의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1964년 11월 13일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문화훈장까지 받게 되었다.

학교립 개발에 관심을 두고 경기도 양주군의 천마산 1백 70만평을 사들여 학교립을 조성하였고, 임간학교(林間學校) 시설도 꾸며, 예절교육, 실습교육, 재난극복훈련을 실천에 옮겼다. 천마산은 '상명'의 창학정신의 요람이자 정신사적 도량이기도 하였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호흡을 같이 하며 생활하는 속에서 순결하고 검소하며 창조적인 믿음의 인간을 육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여성운동의 중심에 섰던 몇몇 운동가들과 함께 자연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을 여성운동을 통해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1971년 5월 21일에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녹지여성협회'는 황폐한 이 나라의 산야를 푸르게 가꾸는 운동의 일익을 여성이 담당해 내지는데 그 특징이 있었다. 창설 이래 매년 '전국여성지도자대회'를 열고 여성의 소리와 주장을 담은 '오늘의 문제' 캠페인을 벌여 나갔다.

1964년 2월 '상명초등학교'의 신설을 시작으로 1965년 1월에는 대학설립인가를 얻어 1965년 '상명여자사범대학'을 개교하였다. 본격적으로 고등교육에 헌신하기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 '상명여자사범대학'은 가정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단 3개의 학과, 90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다. 여자로서 기본소양을 증시했기에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임을 교육하기 위하여 가정교육과를 설치하였고, 미술교육과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분야로서 '상명고등기예학원'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육교육과는 '건강한 신체 없는 곳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없다'는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개 학과에 전임교수 5명과 2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상명여자사범대학'은 1979년도에 이르러 12개 학과로 성장하였다. 1976년에는 사학육성의 유공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1982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 되었다.

1981년부터는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입학정원이 130%로 증가하게 되고, 대학이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이 사회에 팽배해

지면서 교육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즉,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종합대학으로의 변신에 적기를 간파한 듯하다. 사범대학에만 한정되어 있던 교명을 1983년에 '상명여자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70년대부터 고등교육 수요가 많아지면서 대학입학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제2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고, 천안에 부지를 마련하고 마침내 제2캠퍼스 사업을 1985년

<표 1> 배상명 선생 일생(주요 연표)

1906. 5. • 평안남도 강서군 수산면 금천리 출생	1964. 4. • 서울특별시 교육회 부회장 (~1966)
1919. 2. • 평양 명륜소학교 졸업	1964. 11. • 문화훈장 국민장 수상
1923. 3. • 서울 동덕여학교 졸업	1965. 2. • 상명여자사범대학 초대학장 취임 •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1976)
1924. 4. • 서울 삼선학교 교사(~1926)	1965. 10. • 서울사립중등학교장 연합회 교육공로상
1925. • 방관책씨와 결혼	1967. 11. • 대한교육연합회 교육공로상 수상
1937. 5. • 일본동경고등기예학원 사범과 졸업	1968. 5. •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
1937. 12. • 상명여자고등기예학원 설립 및 원장 취임	1968. 5. • 한국 서울 제 2회 세계대학총장회의 참가
1939. 3. • 상명실천여학교 교장 취임	1968. 7. • 아일랜드 더블린 세계교직원단체총연합회 총회 참석
1945. 11. • 상명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취임	1969. 12. • 농림부 산림산업 유공표창
1948. 10. • 정부주관 미국시찰	1971. 12. • 농림부 산림산업개발 공로표창
1949. 9. • 미국 시카고대학 교육학부 수학	1972. 6. •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이사
1950. 4. • 미국 미시간대학 영어숙성과 수료	1972. 8. • 대한민국 문학예술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조림가협회 부회장
1951. 8. •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과정 연구	1975. 11. • 미국 보스턴 제4회 세계대학총장회의의 참가
1951. 9. • 상명여중·상명여고 분리 인가 학원장 취임	1976. 10. • 대통령 표창
1954. 6. • 도미 후 첫 귀국	1977. •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1955. 12. • 서울특별시장 교육공로 표창	1978. • 이란 제5회 세계대학총장회의의 참가
1959. 6. • 제 41차 헬싱키 세계여학사대회 참가 및 유럽 순방	1980. 10. • 상명학원 제 4대 이사장 취임
1961. 5. • 대한사립중등학교장회 연합회 이사 • 교육공로표창장 수상(이화여대)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	1982. 12. •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1962. 12. • 대한여학사회 회우부장(~1963) • 서울사립중등학교장회 감사(~1964)	1986. 2. • 배상명 선생 별세

출처: 이준방 저. 계당 배상명 선생 추모·회고집 내일의 시작은 오늘에 있다. 서울: 상명대학교 50주년기념사업회. pp. 239-241에서 재편집.

3월에 완성하기에 이른다. 영문과·불문과·일문과·독문과·산업디자인과·사진과 등 총 6개 학과에, 학생 280명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천안캠퍼스 입학식사를 전하면서 천안캠퍼스 시대를 여는 자리에 함께 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이 첫 입학식이 상명과의 마지막 인연이었고, 이듬해 2월 지병의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선생의 80년 일기, 상명의 약 50년이 마무리 되었다.

위와 같은 배상명 선생의 생애 분석을 통하여 학교사의 주요 사건은 학교의 성격과 명칭의 변화와 맥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선생이 신여성으로 꿈을 키우던 시기를 지나, <상명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상명여자중고등학교>까지로 발전시켰던 중등교육의 시기, <상명여자사범대학>을 설립하여 고등교육으로 교육의 수준을 확장하고 지도자교육에 헌신하던 시기, <상명여자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도자교육에 추가하여 모든 학문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던 시기, <상명여자대학교>로 종합대학으로 위상을 갖고 제2캠퍼스 설립하기까지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각 시기마다 선생은 개인적으로 학업, 결혼, 출산, 유학, 학장, 이사장 등의 상황과 소임을 맡게 되고, 사회활동을 통해 조동식, 김활란, 백낙준 등 교육 인사들과의 교감도 단계적으로 이루어감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기록을 분류하고, 잠재적 수집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된 점에 의의가 있다.

4.2 배상명 선생 기록 현황

현재 배상명 선생의 기록은 유물과 함께 상명대학교 내 '계당배상명기념관'에 보존 전시되어

있다. '계당배상명기념관'은 선생이 생전에 기거하며 학교 업무를 보던 집무실로 이것을 개조하여 2013년에 재개관하였으며, 상명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과 수집품 등을 정리, 이관하여 이곳에서 전시와 보존을 겸하여 소장하고 있다. 전시·보존되고 있는 기록으로는 선생의 친필원고, 친필노트, 서신, 가족사진, 학교사진, 각급학교의 설립 인가서 등 학교 관련 주요 문서, 교기, 선생의 유학시절 성적표, 학위기, 도장, 명함, 의류 등이 있다. 전시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테마는 선생의 개인사, 두 번째 테마는 상명학원의 탄생과 발전, 세 번째 테마는 선생의 소장품 및 유품이다.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으나 온라인 전시가 이루어지거나 디지털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상명대학교 박물관, 2013). 다만 소수의 일부 자료만이 도서관 홈페이지의 서브 메뉴인 '상명사료'로 탑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5. 배상명 생애사 분석을 통한 기록 관리 방안 제안 - 기록의 분류와 향후 수집계획을 중심으로

생애사를 통해 볼 때, 배상명 선생은 80년 평생 중 유아기와 청소년기(학창시절) 그리고 결혼과 출산 시기를 제외하면 약 50년을 상명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활동하였다. 따라서 선생의 생애에 따른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상명대학교의 학교사를 구축하고 상명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창학정신과 교육철학을 드러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축적해 나가는 의미 있

는 활동이 될 것이다.

4장의 생애사 연구와 현재의 배상명 기록 현황을 바탕으로, 배상명 기록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배상명 선생의 생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시기의 구분은 개인사의 변화와 학교사의 흐름을 고려한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06년부터 1924년까지로 출생부터 동덕여학교 졸업까지의 시기이며, 이 시기의 주요사건은 3.1 만세 운동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와 배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동식 선생의 가르침에 깊게 감명을 받고, 이후 교육인생에서 조동식 박사와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작을 맞이한다. 두 번째 시기는

1925년부터 1934년까지 동덕여학교 졸업 이후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교사 생활, 결혼, 출산 등 선생의 일생에서 가장 가정적이고 대외적인 사회활동이 없었던 시기이다. 사회활동은 없었지만 사회활동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컸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시기는 1935년부터 1954년까지로 가정에 묻혀있던 시기를 벗어나 마침내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수학하고 귀국 후 '상명여자고등기예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시작하고, 미국 교육시찰단 참여와 미국 유학생회가 이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사회적으로는 한국전쟁이 있었고, 선생은 해외 생활을 길게 이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 여러 나라에서 얻은 경험과 교육적 가치가 상명 정신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체육교육을 중시하고, 전인교육을 강조

<표 2> 배상명 개인기록의 시기별, 사건별, 관련인물, 사회적 이슈별 분류

시기	개인사 주요 사건	학교사 주요 사건	관련 인물	사회적 이슈
1시기 1906~1924	• 학업(명륜소학교, 동덕여학교)		• 조동식	• 3.1 만세 운동
2시기 1925~1934	• 삼선학교 교사 재직 • 혼인 • 출산		• 방관책(남편) • 방정복(딸)	
3시기 1935~1954	• 일본 동경기예학교 수학 • 미국 시카고대학 교육학부 수학 • 미국 미시간대학 영어숙성과 수료 •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학과 연수	• 상명여자고등기예학교 설립 • 상명실천여학교 교장 취임 • 상명유치원 설립 • 상명학원 설립 • 상명여자중학교 전환 인가 • 상명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취임 • 재미상명재단설립 • 미국교육시찰단 참여(도미) • 구인회(교장단 비공식 모임)	• 김활란 • 이메리 • 조동식 • 리숙중 • 신봉조 • 송금선 • 황신덕 • 한갑수 • 구인회 • 백낙준	• 한국전쟁 • 4.19 • 5.16
4시기 1955~1986		• 천마산 임간학교 • 한국여성복지협회 활동 • 상명여자사범대학 시작 • 천안캠퍼스 시작	• 이준방	• 대학 입학정원제 • 수도권 인구 억제책으로 제2 캠퍼스로 교세 확장

하는 선생의 일화들은 해외 생활에서 보고 들은 바를 펼쳐 놓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시기는 1955년부터 1986년까지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신하여 상명사범대학을 출범시키고 교세를 확장시켜 천안캠퍼스를 개교하고 작고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사회적으로 근대화와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사범대학을 설립하여 여성교육과 지도자교육을 선도하고 학장으로 재임하며 교육관을 펼친 시기이다. 각 시기별로 발생한 중요한 학교사, 개인사, 관련된 인물, 교육계 및 사회적 이슈들을 정리하여 연결시킬 수 있다.

〈표 2〉는 배상명 기록의 분류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현대의 기록관리는 단순히 수집과 보존이 아니라 검색을 기반으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분류는 조직의 측면만이 아니라 이용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분류체계보다는 다중 분류체계가 유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상명 기록의 분류체계는 다중체계를 지향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기능과 주제에 의한 분류와 형태에 의한 분류가 다중적으로 작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능과 주제에 의한 분류는 시기분류, 학교사 분류, 개인사 분류, 관련인물 분류, 교육계 사회주요사건 분류로 나눌 수 있고, 형태 분류는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시스템과 동일하게 문서류, 사진류, 시청각류, 간행물류, 신문류, 박물관류로 나눈다.

기능 및 주제에 의한 5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류의 기준은 시기분류이다.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관리시스템의 시대분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애 50년을 4개 시기

로 구분하였다. 단순히 시간 순서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사의 굵직한 변화와 개인의 변화가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다.

두 번째 분류기준은 학교사 사건이다. 학교사 사건은 학교명칭의 변화와 의미, 학장·총장의 이취임, 학제 변화 등이다. 시기와 무관하게 학교사 기록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유용할 것이다.

세 번째 분류기준은 개인사 사건이다. 배상명 선생의 개인사는 소속기관이 상명대학교의 공적 활동에 연결된다. 공적인 관점으로 보면 행정기록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개인 배상명의 입장에서는 극히 개인적인 일상들이며, 이것이 갖는 가치가 사회적 집합 기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간 배상명에 관한 기록을 이용하고자 할 때 유리할 것이다. 결혼, 임신, 출산, 취업, 학업 등이 이에 해당하고, 선생의 개인적인 성장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분류할 수 있다.

네 번째 분류기준은 관련인물이다. 개인의 삶 속에는 타인과의 교류가 등장하고, 그 타인이 갖는 여타의 배경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배상명 선생의 생애에서는 조동식, 김활란, 리숙중, 백낙준 등 교육인사와 해외 활동을 통해 친분을 맺은 외국인들이 해당된다.

마지막 분류기준은 교육계와 사회적 사건들이다. 이 분류기준은 시기분류와 중복될 수 있지만, 선생이 생존한 기간은 전쟁, 혁명, 민주화 운동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기였고, 그 안에서 교육정책의 개발, 수정, 변화 또한 다이나믹하게 일어났다. 맥락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및 주제분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기록에 대한 정확한 메타데이터 확립이다. 기록의 생산과 맥락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완전하고 안정적인 기록의 조직을 도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다양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려면 시소러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교사, 개인사, 관련인물, 사회주요이슈 등은 기록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소러스가 구축되어 기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방관책’이라는 인물은 자연어로 ‘방관책’을 분류 기준점으로 둘 수는 없다. 가족, 친지 등 적합한 언어로 전거통제 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았지만, 배상명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 ‘계당배상명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록물을 예로 들어 다중 적용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계당배상명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표지에 1969년으로 표기된 친필노트는 시기분류에는 ‘4시기’에 분류되고, 학교사 분류에서는 ‘상

명여자사범대학’으로, 형태분류는 ‘문서류’로 분류할 수 있다. 친필노트가 기록된 1969년은 상명여자사범대학이 출범하여(1965년) 4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노트의 내용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에서 오는 소소한 고민과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시로 1930년대로 추정되는 가족사진은 시기분류에서는 ‘2시기’에 분류되고, 관련인물 분류에서 ‘가족’(시소러스 구축을 전제), 형태분류는 ‘사진류’로 분류할 수 있다.

기록의 가치는 맥락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의 기준을 다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록의 사실성을 맥락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고, 정보의 다각적 측면을 수용할 수 있는 입체성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친필노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물로 만일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배상명 선생의 사적인 일기에 불과하겠지만, 상명여자사범대학이라는 사건 키워드와 결부되면서, 상명대학교 구성원에게는 당시 대학 운영과 학장으로써의 생각과 고민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이념과 철학의 정립 과정을 공유하게 할 것이며, 지역사회 나아가 교육계와 국가에서는 동시대의 공공기록을 보완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더 사실적인 기록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표 3〉 배상명 기록물 분류 예시

기록물	기능 및 주제별 분류					형태분류
	시기	학교사	개인사	관련인물	교육사회사건	
친필노트 (1969)	4시기	상명여자 사범대학				문서류
가족사진 (1930 추정)	2시기			가족 (방관책, 방정복)		사진류

〈표 4〉 배상명 기록의 분류체계와 향후 수집전략

분류체계	다중분류	기능 및 주제분류	시기 분류 학교사 분류 개인사 분류 관련인물 분류 교육 사회사건
		형태분류	
수집전략	분류체계에서 도출된 모든 주제어를 기록 수집을 위한 키워드로 활용		
	분류체계에서 도출된 모든 주제어를 기록의 잠재적 생산자, 수집자로 추론하여 수집처 확보 전략으로 활용		

위의 예시들은 현재 소장하여 전시하고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한 분류이다. 배상명 선생의 기록은 앞으로도 꾸준히 수집되어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추후 기록물 수집의 범위,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출처를 선별할 때에도 〈표 1〉의 기준들을 활용할 수 있다. 각 시기의 범주에서 사건, 인물들은 새로운 기록을 발굴하는 주요 키워드로 활용될 수 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배상명 기록을 탐색하여 소장처를 파악하고 소장처와의 협력을 통한 기록의 공유 내지는 소재 파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배상명 선생의 구인회 기록(사진류)은 타 대학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고, 소장 확인에는 구인회와 구인회 회원의 이름이 중요한 맥락 정보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과 주요사건, 인물정보는 발굴되는 기록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동 시대를 알 수 있는 잠재적 정보들이 결합된다면 수정 가능한 것이다. 기록학적으로 소위 리드파일을 유지해 나가면서, 기준들을 보완,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애사 분석을 통한 개인기록의 분류체계와

향후 수집전략을 위한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결 론

대학은 목표와 사명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대학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교수, 교직원, 학생들로 각자가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은 축적하고 공유하면 대학 집합 기록이 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대학의 역사를 정립하고, 대학이 갖는 교육이념과 철학 등을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의 관련인물 중 많은 기록의 생산자이자 기록의 출처인 설립자의 개인기록의 분류와 수집전략에 대하여 논하였다. 방법론적으로 생애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상명대학교 설립자 배상명 선생의 생애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4종의 사료를 탐색하여 활용하였고, 80년에 걸친 배상명 선생의 생애를 통하여 기능 및 주제분류, 형태분류의 다중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각각의 분

류체계 안에서 도출된 키워드들은 향후 수집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단서로 활용하고, 잠재적인 기록의 생산자와 수집처를 확보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수집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타데이터와 시소러스구축과 같은 진체적 요건들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개인의 기록은 공공의 기록 혹은 행정기록 보다 무질서하게 생산되고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체계화, 표준화의 실현은 요원하다. 그러나 자유로운 상태의 개인 기록은 보완재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바, 향후 연구에서도 개인기록의 특성과 본질에 알맞은 관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길태 (2017). 김대건 신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진용 (2013).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2011). 검색일자: 2017. 1. 6. <http://www.archives.mju.ac.kr>
- 상명대학교 박물관 (2013). 검색일자: 2017. 1. 6. <http://museum.smu.ac.kr>
- 윤효빈 (2016). 개인문학관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수연 (2014). 대학 총장 기록물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연창 (2007). 인물 기록관(Personal Archives) 구축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이정호 (2011). 대학 수집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해영, 이미영, 이은영, 이혁준, 이현정, 최영실, 박미자 (2008). 대학기록관 시소러스 구축 지침의 개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189-210.
- 최영주 (2005). 대학기록관의 개인기록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 최인혁, 이영화 (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49-76.
- 한희동 (2013).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한 대학의 설립자 기록물 수집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허소윤 (2015). 대학기록관 개인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In Hyeok & Lee, Young Hak (2015). Life History Research Based Private Document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4), 49-76.
- Choi, Young-Ju (2005). A Study of the documentation of personal document in a university archive.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es science, Myoungji University.
- Han, Hee Dong (2013). Acquisition methods of university founnder's records by documentation strategy.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eo, So-Yoon (2015).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ersonal records at the university archives.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im, Jin-Yong (2013).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type of the personal Archives. Thesis. Major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 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Kim, Kil-Tae (2017).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Father Andrew Kim Taegon digital archives. Thesis.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 Lee, Eun-Hwa (2009). A Study on personal record collections at Archives - Analysis of Bae Min Su Collection. Thesis.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Track,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es science, Myoungji University.
- Lee, Junghyo (2011). A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of university manuscript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Suse Yeon (2014). A Study of management method about records of university president.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MyongJi University Archives & Records Center (2011). Retrieved January 6, 2017, from <http://www.archives.mju.ac.kr>
- Rieh, Hae-young et al. (2008).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hesaurus Construction at University Archives: Case Study of Myongji University Archives Center. *Journal of*

-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1), 189-210.
- Sangmyung University Museum (2013). Retrieved January 6, 2017, from <http://museum.smu.ac.kr>
- Yi, Yeon Chang (2007).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Personal Archives. Thesi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 Yoon, Hyo Bin (2016).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re contents for the writer's digital archives. Thesis.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